

전라도 정도 1000년 전시·학술행사 풍성



일섭 불일상(왼쪽)과 내습에 참전한 일본 무장의 활약상을 그린 '몽골습래회사'.



광주·전남 박물관 올해 전시 일정

광주박물관 '약무호남 시무국가'전

개관 40주년 국제학술대회 개최

나주박물관, 고려사 조명 공동특별전

박물관은 지역의 전통 문화를 조망하고 출토 유물 등을 전시,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다. 오늘의 박물관은 옛 선조들의 문화와 지혜를 느끼는 보고(寶庫)의 의미뿐 아니라 현대인들에게 쉬와 휴식을 제공하는 힐링 공간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는 전라도 정도(正道) 100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다. 지역 박물관은 올해 이와 연관된 특별 전시와 학술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또한 기획전, 강연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박물관을 구현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올해 개관 40주년(12월 6일)을 맞는 국립광주박물관은 기념학술대회, 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송의정)은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해 특별전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가제)를 오는 10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호남의 역할을 중요시한 충무공 이순신의 뜻을 받들어 호남인들의 충의와 용기 등을 조명한다는 취지다.

이와 아울러 온갖 시련 속에서도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은 호남인들의 풍류 등 지난 1000년 동안 면면히 이어온 호남인들의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전시로 꾸밀 방침이다. 또한 개관일인 12월 6일에는 특별전 연계 기념학술대회도 열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오는 5월에는 특별전 '금용 일섭'이 예정돼 있다. 금세 한국 불교미술을 이끈 호남 출신의 대표적인 금어(金魚·단청)나 불화를 그리는 일에 종사하는 승려, 금용 일섭(金容 日燮, 1900~1975)의 생애와 대표작을 소개한다.

금용 일섭은 1913년 순천 송광사에서 출가했으며 1918년 불교미술에 입문해 1920년대 중반부터

불화와 불상, 단청, 개금 등 불교미술의 모든 분야에 종사한 대표적인 금어(金魚)이다. 1935년 김제 금산사 미륵대불의 조성 입찰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조각가 김복진과 경쟁하는 등 당시 사찰불사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1975년 입찰할 때까지 전국을 무대로 총 500차례의 불사를 행했으며, 후진 양성에 힘써 오늘날에도 '일섭문도회'의 제자들이 사찰불사의 일선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올해 전시는 금용 일섭을 소개하는 최초의 전시로, 그의 대표작을 중심으로 근대 한국 불교미술의 다양한 양상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둔다.

국립나주박물관(관장 박종환)은 올해 고려건국 1100주년, 전라도 정명 1000년을 기념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호남역사를 소개하는 중·근세 전시를 기획한다.

먼저 3월에 열리는 특별전 '최희량 장군과 임란'은 임란의 위기를 이끈 최희량 장군과 관련된 문화재를 중심으로 임란을 재조명한다. 최희량 장군이 남긴 정장 보고서인 '임란첩보서목'(보물 제 660호)의 내용을 관련 문화재와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고려건국 1100주년을 기념해 오는 6월 국립제주박물관, 강화역사박물관과 공동으로 특별전 '삼별초와 동아시아'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삼별초 항쟁 역사를 중심으로 13세기 동아시아의 역사와 고려사를 씨줄 날줄로 엮어 재조명하며 진도 용장성 출토품 등 관련 문화재 300여 점이 전시된다.

마지막으로 전라도 정명 1000년을 맞아 9월에 개최되는 특별전 '전라 명품전'은 광주·전남의 역사와 문화유산의 정수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둔다. 각 시대를 대표하는 명품 100여 점을 한 자리에 모아 전라도의 문화유산과 전통을 재조명할 계획이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관장 조만호)은 올해 박물관 리모델링, 사회교육, 조사연구 등을 진행한다.

2년에 걸쳐 진행되는 리모델링은 개관한지 30여년 만에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전시실 개보수작업이다. 이를 토대로 기존의 '남도의 민속문화'라는 단일주제의 전시내용이 '광주의 역사자료'와 '전남지역의 민속문화'를 하나로 아우르는 역사민속박물관으로 전시영역을 확대한다.

사회교육 부분은 '광주민속박물관대학' 등이 마련돼 있으며 23회를 맞는 민속박물관대학은 문화유산시리즈 5번째 마당 '세계의 문화유산'을 주제로 3월9일부터 진행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13세기 일본을 내습한 원나라 군대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철포탄.

광주 구석구석 누비며 읊긴 시정

서연정 시조집 '광주에서 꿈꾸기' 출간

"광주에서 태어나 때로는 멀리 날아가고 싶은 때도 있었지만 굶은 소나무처럼 평생을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세계관은 광주 속에서 잉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연정 시조시인(59)이 광주를 주제로 한 시조집 '광주에서 꿈꾸기'(미디어민·사진)를 펴내 눈길을 끈다.

'무등산', '규봉암에서 쓰는 편지', '운림동의 호숫가', '총화리', '풍영정 노을', '망월동에서 생각하는 사람' 등 작품에는 익숙한 지명 등을 소재로 한 작품이 담겨 있다.

4음보라는 율격은 시조를 쓰는 이들에게는 즐거움이자 '족쇄'이기도 하다. 그러나 서연정 시인은 "그 형식이 내게는 편하고 흥미롭다. 특히 종장에서 풀어내는 재미는 무엇에 비할 바 없다"고 설명했다. 4음보를 토대로 하는 시조가 시인의 문학적 감각과 맞아떨어진다는 얘기도

"어머니 셈법으로 영을 만들어준다/ 아무러나 그럴까, 믿지 못하겠거든/ 때 묻은 시시비비를 올려놓아 보아라// 찾아가 붙안거나 멀리 바라보거나/ 푸른 손수건으로 흐린 눈을 닦아 준다/ 묵묵히 늘 그곳에서, 아쉽게 무등산"

'광주를 상징하는 작품 '무등산'은 "푸른 손수건으로 흐린 눈을 닦아주는" 존재로 형상화돼 있다. '무등산'은 광주 사람들에게는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찾아가서 꺼안을 수 있는 품이 넓은 어머니에 닮아 있다.

이처럼 작품집에는 광주 구석구석을 누비며 느꼈던 시정이 녹아 있다. 시조로 읽는 광주의 문화 역사라 해도 무방한 이유다.

한편 서 시조시인은 중앙일보 지상시조백일장 연말정원(1979년)과 서울신문 신춘문예(1998년) 시조 당선으로 문단에 나왔다. 지금까지 '먼길', '문과 벽의 시간들', '무엇이 들어 있을까', '동행' 등을 펴냈으며 광주문학상과 국제 PEN광주 올해의 작품상을 수상했다. 현재 '마을 길 걷기' 답사 팀을 운영하며 광주를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

이상문학상 대상에 손흥규 작가 선정

제42회 이상문학상 대상(상금 3500만원)에 작가 손흥규(43·사진)가 선정됐다. 수상작은 중편 '꿈을 꾸었다고 말했다'.



이상문학상을 주관하는 출판사 '문학사상'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상작품과 선정 배경을 발표했다.

심사위원회는 "소설적 주제의 무게와 그 진지한 추구 방식에서 심사위원 전원의 지지를 받았다. 장편소설이 추구하는 서사의 역사성과 단편소설에서 강조하는 상황성을 절묘하게 조화하고 있는 점에서 중편다운 무게를 보여주고 있

다"고 평했다.

전북 정읍 출신의 손흥규 작가는 지난 2001년 '작가세계' 신인상으로 등단했다. 2004년 대산창작기금과 2005년 문예진흥기금을 받았다. 그동안 장편 '귀신의 시대', '청년의사 장기러', '이슬람 정육점', 소설집 '사람의 신화', '봉선이 가라사대', '툰은 툰과 잤다' 등을 펴냈다.

우수작으로는 구병모 '한 아이에게 온 마을이', 방현희 '내 마지막 공랭식 포르세', 정지아 '존재의 증명', 정찬 '새의 시선', 조해진 '과중하는 밤' 등 5편이 뽑혔다.

한편 이상문학상은 지난 한해 주요 문예지에 발표된 중·단편소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시상식은 오는 11월에 열릴 예정이다. 수상작품집은 이달 19일께 출간된다. /박성천기자 skypark@

광산 이야기꽃도서관 20일·27일 무료 독서교실

광산구립 이야기꽃도서관이 오는 20일과 27일 초등학생 겨울독서교실을 마련,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접수는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을 구분해 받는다. 저학년은 '우리들이 만드는 세상', 고학년은 '마음을 위한 독서치유'가 주제다.

20일 저학년 프로그램은 '신나는 눈싸움'과 '불어방 모빌', 고학년 프로그램은 '강점 발견'과 '열등감·콤플렉스 극복'이다.

27일에는 저학년의 경우 '중이 퍼포먼스', '중이로 건물짓기', '팝업 수업' 등을 진행한다. 고학년은 '눈노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감정조

절', '자아실현 감정표현', '팝업 수업' 등을 함께 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오후 1시부터 진행된다. 겨울독서교실을 처음 여는 20일 오전 10시에는 보드게임 '바오밥챌린지'를 진행한다. 이야기꽃도서관 스타디움아리 '연리지'가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재능기부로 마련한 게임이다.

겨울독서교실은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광산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http://bit.ly/2kl-NQDI) 선착순 접수. 문의 062-960-6811~1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오픈 1주년 기념 이벤트 지금 연락주세요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전용 보청기
- 보청기 테스트 &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5분 이상 물로 가릴 때도 물이 스며들지 않고 먼지 붙이지 않는 일회용 방수시트

Step 1. 방수장리
Step 2. 단열반이스카짓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징점

- 1/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2/ 건축 내외장재 패턴디자인러 잔 엔디나와의 클라보 디자인!
- 3/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4/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린다고요? 20년을 가는데!!!

특허 제10-0952025호
특허 제10-1097764호
특허 제10-0548189호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2중단열 단열방수 | 냉난방비 절감 |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 6년 무상 A/S

총론문화센터 옥상시공 | 시공사례 | 상명대학교/광명군보건소/대전대학교/태백시보건소/안성시립도서관/강화군청/인제군청/부천소방서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